

강진군 효심이 프로젝트로 마량면에 따뜻한 빨래방 문 열다

어르신 일상생활 돌보는 생활밀착형 복지 플랫폼 구축

강진군은 지난 28일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조성된 주민공동체 공간 마량복합시설에서 고향사랑기금사업으로 만든 '마량면 효심이 빨래방' 준공 및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진군 강진군수와 서순선 강진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마량면 새마을부녀회, 이장단, 생활개선회 등 지역 단체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시설 개소를 함께 축하했다.

마량면 효심이 빨래방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조성된 강진군 고향사랑기금을 기반으로 추진된 효심이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으로, 겨울철 이불 등 대형 세탁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생 관리 향상과 생활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마을 이장과 부녀회, 지역 단체가 세탁물 수거 및 전달 과정에 참여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함께 살피므로써, 일상생활 지원과 정서적 돌봄을 결합한 지역 중심 돌봄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강진군은 효심이 프로젝트의 하나로 효심이 빨래방 운영을 비롯해 효심이 든든밥상 거점형 경로당 조성, 우리동네 고기밥상데이 운영 등 어르신 복지사업에 총 3억 5천여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방미순 마량면 새마을부녀회장은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빨래방을 조성해 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단체 회원들과 지역 단체장들이 협력해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이는 마을 사랑방 같은 공간으로 가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마량면 효심이 빨래방



은 세탁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살피고 지역 공동체 유대를 강화하는 복지 거점"이라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한 군민 체감형 복지정책을 단계적으로 확장에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지난해 전라남도 고향사랑기금사업으로 성전면 효심이 빨래방 1호점을 개소한 데 이어, 2026년 도암면과 마량면까지 운영을 확대했다. 또한 효심이 프로젝트를 통해, 군 전역으로 생활밀착형 세탁, 돌봄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강진/손경설 기자



담양군, 현장 맞춤형 마을활동가 9인 위촉

담양군이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현장 맞춤형 마을활동가 9인을 위촉하고 2026년 공동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지난 27일 담양군 어울림센터에서 '2026년 마을활동가 위촉식'을 열고, 공개 모집과 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된 활동가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선발은 자격 요건 완화를 통해 다양한 실무 경험과 현장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참여한 것이 특징이다.

위촉된 활동가들은 향후 1년간 관내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신규 마을공동체 발굴, 공모사업 컨설팅, 회계·정산 지원, 주민자치회 활동 지원, 마을 영상 제작 등 마을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현장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올해는 전라남도 생활임금을 반영한 활동 수당 현실화와 정산 지원 수당 신설 등 처우 개선이 이뤄져, 보다 안정적인 하고 책임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촉식에 참석한 활동가들은 행정과 주민을 잇는 가교로서 마을의 고유한 자원을 발굴하고,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양순에 담양군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장은 "마을활동가는 주민 곁에서 공동체의 가능성을 키워가는 핵심 주체"라며,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과 네트워크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 경제 육성, 농촌협약 사업 등 다양한 농촌 활성화 정책을 현장에서 지원 하는 중간지원조직이다. 담양/이종욱 기자



고인을 기억하는 작은배려, 추모액자 제공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봉안당 안치자 위한 추모 서비스 확대

영광군은 영광군 공설추모공원을 이용하는 봉안당 안치자를 대상으로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추모액자'를 제공하여 유가족의 정서적 위로와 추모 서비스 향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추모액자 제공은 공설추모공원을 찾는 유가족들이 고인을 보다 따뜻하고 의미 있게 기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안치당 내 고인의 사진을 담은 추모액자를 비치함으로써 추모공간의 정서적 안정성과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자 추진되었다.

특히, 공설추모공원이 단순한 안치 공간을 넘어 고인을 기리고 유가족의 마음을 위로하는 사람 중심의 추모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영광군수는 "추모액자 제공은 고인을 존중하고 유가족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설추모공원을 보다 따뜻하고 품격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현식 기자

고흥군, 현장을 찾아 복지사각지대에 온기를 더하다

겨울철 고독사 예방 위한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캠페인 전개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조기 발굴과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난 23일과 29일 고흥읍과 도양읍 일원에서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희망맞고발굴단과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여해 전통시장과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함께 찾아 나서는 현장 중심의 활동을 펼쳤다.

참여자들은 도움이 필요한 복지위기가



구 신고 안내와 함께 주요 복지사업 광고지 및 홍보 물품을 전달하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작은 관심이 생명을 지킨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한파 속에서 혼자 생활하는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과 제보가 위기를 막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추운 겨울철에는 고독사 위험이 커지는 만큼 이웃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이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군이나 읍·면사무소로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연중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활동 추진과 함께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맞춤형 관리와 민관 협력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지속적으로 힘을 계획이다.

고흥/박도일 기자

보성군 보성읍, '설맞이 취약계층 온기 나눔 사업' 추진

'기운 쭉쭉! 고기 나눔'으로 명절 식료품 전달 및 안부 살피

보성군은 지난 28일 보성읍희망드림협의회(위원장 안재섭)가 보성읍 취약계층 40가구를 대상으로 '설맞이 취약계층 온기 나눔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명절을 앞두고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중장년층과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떡국떡과 한돈 등 명절 식료품을 지원해 따뜻한 정을 나누고, 대상 가정의 안부를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대상 가정 방문을 통해 식료품 전달하고 생활 여건 및 정서 상태를 점검하며 현장 밀착형 복지를 실천했다.

보성읍희망드림협의회 안재섭 위원장은 "설 명절을 맞아 이웃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온기를 전하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삼룡 보성읍장은 "이번 사업은 민·관이 협력해 취약계층을 세심하게 살피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성읍희망드림협의회'는 지역 내 복지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을 위해 대상별 맞춤형 나눔 사업을 추진하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복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보성/김윤기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제54회 강진청자축제

흙과 불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

2026년 2월 21일(토) - 3월 2일(월)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박물관 일원

주관 |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